

No.20171122-001

제목: 금목서와 그녀의 시간

저자: 아야사카 미츠키

페이지수: 320

장르: 소설, 미스터리

출간일: 2017년 9월 29일



<내용소개>

**축제 분위기로 들뜬 교정을 누비는 여고생 나츠키의 인생 세 번째 타임 슬립
사춘기 소녀의 사랑,友情, 불안을 담은 선명한 학원 미스터리!**

주인공인 우에하라 나츠키가 타임슬립을 처음 경험한 것은 7살 때였다. 나츠키는 당시 편찮으신 친할머니를 모시는 문제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님 사이에서 그저 할머니가 집에 온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던 어린 아이였다.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간 나츠키에게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조금 뒤 한 남자가 가방을 들고 쭉쭉 뛰어가는 뒤편으로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게 된다. 소매치기가 저항하는 할머니를 무자비하게 바닥에 팽개친 것이다. 나츠키는 패닉에 빠지고, 백화점에 장식된 시계는 오후 세 시를 가리킨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나츠키는 한 시간 전으로 돌아간다. 이 알 수 없는 현상이 무려 네 번이 반복되고 다섯 번째 타임슬립의 순간, 나츠키는 피를 내어 소매치기로부터 할머니를 구해내게 된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그녀의 말을 단지 어린아이의 상상력으로 치부했고,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도 않았기에 불가사의한 해프닝은 일단락 된다.

하지만 나츠키가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한 뒤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참가하게 된 하이킹에서 그녀의 두 번째 타임슬립이 일어난다. 같은 반 여자 친구들 때문에 나츠키는 하이킹 코스에 홀로 남겨지게 된다. 어두운 밤 길, 비는 폭우처럼 쏟아지고 천둥이 치는 와중에 극심한 복통을 느낀 순간, 정신을 차려 보니 다시 한 시간 전으로 타임슬립을 해 버리고 만다. 장난을 친다며 가볍게 시작한 것이었지만 나츠키에게는 다시금 이상한 현상과 마주한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그 후 그녀는 가능한 자신을 숨기고 사람과의 사림에 거리를 두게 된다.

나츠키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3학년이 되어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축제로 잔뜩 들뜬 분위기의 학교 옥상에서 나츠키는 나름 학교에서 스타 취급을 받는 타쿠미에게 고백을 받게 되는데 그 직후 그녀의 세 번째 타임슬립이 시작된다. 여태까지와 같은 패턴이라면 그녀는 그 날 타쿠미에게 총 다섯 번의 고백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옥상으로 향하는 나츠키를 두고 타쿠미는 옥상에서 떨어져 즉사하고 만다. 나츠키에게 남은 것은 다섯 번의 타임슬립 기회. 타쿠미를 구하기 위한 나츠키의 고군분투가 시작된다. 과연 나츠키는 타쿠미를 구할 수 있을까?

이 소설은 일본 청춘 미스터리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임 리프 소재를 다루고 있다. 같은 상황이 다섯 번 반복되며 마지막 다섯 번째의 행동이 확정된다는 설정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다섯 번의 동일한 상황 설정이 딱히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등장 인물 개개인의 심리 묘사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소녀들의 감성과 우정, 갈등 등이 잘 버무려져 있는 학원 청춘 미스터리 작품이다.

<저자소개>

아야사카 미츠키

야마가타 현 덴도시 출생으로 와세다 대학 제2문학부를 졸업, 재학 중에는 와세다 미스터리 동아리에서 활동하였다.

2009년 '미성년 의식'으로 제 7회 후지미 영 미스터리 대상에 준입선하며 작가로서 데뷔한다.

2012년에는 '여름왕국에서 깨어날 수 없다'로 제 12회本格 미스터리 대상 후보에 올랐다. 2015년 발표한 '석류 퍼즐'은 일상의 수수께끼에 주제를 두고 등장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No.20171122-002

제목: 별점 다섯 개를 달아줘

저자: 오쿠다 아키코

페이지수: 215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10월 21일



<내용소개>

리뷰 별점에 의지해 옷이나 가전, 심지어 사람을 선택한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의 일상을 돌이켜보면 현실에서의 만남보다 인터넷, SNS와 같은 온라인이 소통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이 작품은 현대에 만연한 인터넷 사회, 블로그, SNS, 사진 공유 사이트 등과 같은 온라인 소통 도구를 테마로 지금까지 읽은 적 없는 날카로운 관점에서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들을 생생하게 묘사한 연작집이다. 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읽씹' 하는 사람은 친구도 아니라는 여고생,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잤을 보내버리는 엄마, SNS를 통해 접하는 전 여자친구의 결혼, 온라인 중개로 계약한 어머니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평판, 대학생에게 온라인 사기를 당하는 중학생, 전직 아이돌의 블로그를 놀잇거리로 여기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인터넷과 SNS에 관한 6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실려 있는 모든 작품이 완성도가 높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표제작인 '별점 다섯 개를 달아줘'이다. 빵 배달을 하면서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의 간호를 하고 있는 주인공은 너무 바쁜 생활을 이유로 인터넷 쇼핑몰과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어머니와 가사 도우미의 관계가 좋아 안심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가사 도우미 파견업체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온라인을 통해 접하게 된다. 하필 그 시점에 어머니가 다치게 되고 주인공은 가사 도우미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망설임을 갖게 된다. 하지만 가사 도우미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치매가 진행 중인 어머니뿐이기에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어머니와 온라인 상의 별점 개수만 신경 쓰며 살던 주인공이 어떻게 스스로의 의지로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누구나 한번쯤 아무 근거 없이 온라인 상의 별점이나 댓글에만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가게를 선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확신을 갖고 마치 정답인 양 말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의존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다. 삼십 대 초반의 저자는 이렇듯 인터넷이나 SNS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특유의 날카로운 관점에서 그려냈다. 또한 가까운 인간관계에서의 섬세한 심리묘사가 돋보인다. 누구에게나 공감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다.

<목차>

- 제1장 : 캔디 인 포켓
- 제2장 : 잼의 끝
- 제3장 : 하늘에 뿌리내리고
- 제4장 : 별점 다섯개를 달아줘
- 제5장 : 워터 언더 더 브릿지
- 제6장 : 너에게 떨어지는 혜성

<저자소개>

오쿠다 아키코

1982 년 아이치현 출생으로 아이치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했다.

전업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 년 '왼쪽 눈에 비치는 별'로 제 37 회 스바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No.20171122-003

제목: 도표로 생각한다. 심플해진다.

저자: 사쿠라다 준

페이지수: 192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7년 10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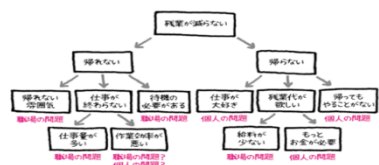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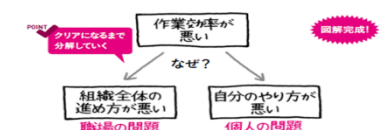
업무의 스피드를 극적으로 높이는 7가지 도구!

우리는 업무 혹은 일상 생활에서 주위 사람들과 상호 소통하며 많은 정보를 주고 받는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주고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저자는 그를 위해 '도표'를 산재한 지식을 구조화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갈고 닦아 투영하는 사고의 활용 툴로 제시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도표 사용의 장점은 '사고 프로세스 그 자체의 단순가 가능'하다는 것과 '심플한 도형의 조합을 통한 불필요함의 경감'이다. 이 타이틀에서 저자는 구조화된 사고를 위한 도표를 여러 요소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교환형 도표', 요소 간의 구성을 명확히 하는 '트리형 도표', 의문 혹은 질문 사항을 깊게 파헤쳐나가는 '드릴다운형 도표', 2개의 축으로 시각적 차이를 강조하는 '비교형 도표', 목적 혹은 목표까지 도달하는 단계를 시각화하는 '단계형 도표',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중첩형 도표', 목표로 하는 방향성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는 '피라미드형 도표'의 7개 유형으로 구분, '외장하드의 파일들을 구조화하기', '야근을 줄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기'와 같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에 접목하며 충분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꼭 일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문제 해결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도구 7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こうして全体を俯瞰すると、残業が減らない要因の中には、「職場の問題」と「個人の問題」の両方が混在し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この中で「作業効率が悪い」に関しては「職場の問題」か「個人の問題」かまだはっきりしません。そこで、もう一段そこだけ掘り下げて、クリアにし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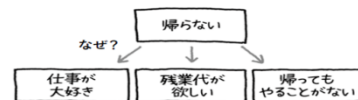


872 第1回トピックス「なぜ」「どうして」を突き詰め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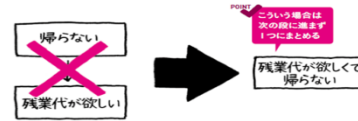
「これ以上は掘り下げられない」となったら終了です。このように要因がわかってくると、「職場で考えなくてはいけないこと」と「個人で考えなくてはいけないこと」がはっきりして、対策を考えやすくなります。

分岐させるときは必ず複数

深掘りの図では、下図のように必ず複数に展開させます。分岐できなくなったら、そこで終わりにします。



しかし複数に分岐せず、矢印が1つになる場合は、1つにまとめましょう。無駄な情報を減らすためです。



873

復習

7つの図の特徴・使い方

	 交換の図	 ツリーの図	 深掘りの図	 比較の図	 段取りの図	 重なるの図	 ピラミッドの図
思考の切り口	関係	構造	要因	立ち位置	手順	コンセプト	方針
わかること	誰と誰が何を交換する関係なのか分かる	モノゴトがどんな構造で成り立っているのかわかる	なぜ今の状況が起きているのかわかる	商品・サービスがどんな立ち位置にいるのかわかる	計画をどんな手順で実行すればいいかわかる	商品・サービスにどんな特徴があるのかわかる	目指す方向とそこに行くまでの道筋がわかる
どんなときに使うのか?	●ビジネスモデルを見える化したいとき ●フェアな関係かを確認したいとき	●情報が複雑にこんがらがっているとき ●モノや情報を絵圖に整理整頓したいとき	●課題の原因を分析したいとき ●状況に対する打ち手を考えたいとき	●ライバルと差別化したいとき ●購入対象を比較・検討したいとき	●実現までの段取りを明確にしたいとき ●手順のどこに問題がありそうかを考えたいとき	●モノゴトのコンセプトを伝えたいとき ●融合商品やサービスの強さを考えたいとき	●会社のビジョンや戦略・戦術を考えたいとき ●目標への到達手段を考えたいとき
失敗しないコツ	矢印は双方向にする 	必ずどこかにひもつける 	次の段に進むときは必ず複数にする 	一番重視する切り口は、タテ軸にする 	メインの流れは一方方向にする 	円は2個か3個にする 	上から下、下から上の両方で一貫性を持たせる 

154 応用 多面的に考える練習

157

<목차>

- 제1장 : 준비운동 - 도표에 익숙해지기
- 제2장 : 기초 트레이닝 1 - 일의 관계성을 간파하기
- 제3장 : 기초 트레이닝 2 -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캐치하기
- 제4장 : 기초 트레이닝 3 - '왜? 어째서?'를 규명하기
- 제5장 : 기초 트레이닝 4 - 세부 요소들을 비교하기
- 제6장 : 기초 트레이닝 5 - 흐름을 생각하기
- 제7장 : 기초 트레이닝 6 - 조합을 의식하기
- 제8장 : 기초 트레이닝 7 - 방향성을 정하기
- 제9장 : 응용편 - 다면적으로 사고하는 연습
- 제10장 : 습관화를 통해 무기로 삼기
- 제11장 : 도표를 보여주는 방법, 도표로 이야기하는 방법

<저자소개>

사쿠라다 준

대학 졸업 후 프로그래머로 커리어를 시작, 시스템 엔지니어, 웹 디자이너, 마케터를 거쳐 현재는 뉴스픽스의 인포그래픽 에디터로 활동 중이다.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일과 사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며 책,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1 장의 도표로 요약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본인이 작성한 도표를 개인 웹페이지인 '비주얼 싱킹'에 게시하며 화제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일본 인포그래픽 분야의 제 1 인자이자, '즐거운 인포그래픽 입문'의 저자이기도 하다.

No.20171122-004

제목: 최강의 설득력

저자: 사이토 타카시

페이지수: 205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7년 9월 21일



<내용소개>

상대로부터 순조롭게 “YES”를 이끌어내기 위한 74개의 법칙!

누구나 직장생활을 하며 혹은 일상 생활을 하며 한 번쯤 ‘그 사람이 부탁하면 왜 거절할 수 없는 걸까?’, ‘왜 그 사람 앞에서는 항상 솔직해 지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회사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남편 혹은 아내에게 집안일을 부탁할 때,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 회식 1차가 끝나고 그만 집에 가고 싶어하는 동료들 2차까지 끌고 갈 때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부터 말이다.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은 설득이다. 다시 우리의 경제 활동을 돌아보자. 옷가게에서 상품을 팔 때, 영업직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주위의 많은 가게 중 우리 가게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설득’이 필요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은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우리의 인생은 설득의 연속인 것이다.

이렇듯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으로 이어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열심히 상대방에게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강조해도 상대는 그저 고개를 갸우뚱할 뿐 결과적으로 거절을 당하는(혹은 이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설득의 중요성은 희미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대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실용서를 자처하고 있다.

본문에서 저자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득’을 목적으로 한 소통을 위한 여러 개념과 일상 생활에서의 적용 사례를 매우 알기 쉽게 소개한다. 재래시장에서 야채를 구입하는 주부에게 ‘오이 하나 덩으로 더 넣었어~’라고 말하는 주인 아주머니, ‘작업을 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 나사가 하나 헛돌고 있어서 다시 잘 돌려 놓았어요’라고 말하는 가전 수리기사들은 상대에게 심리적 부채 의식을 무의식 중에 심어줌으로써 훗날의 답례를 기대한다. 논의 과정에서 상대와는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우선은 큰 틀에서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그 위에 추가 의견 혹은 반대 의견을 올려놓음으로써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립각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사소한 설득의 기술들은 상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인상을 완화하도록 돕는다.

유명 규동 체인점인 '요시노야', 도쿄 디즈니랜드, 나폴레옹, 유명 개그맨, 심리학 분야의 바이블로 불리는 '영향력의 무기' 등 실제 설득의 기술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냈는지를 간접 경험하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잘 통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내가 '저 사람'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설득의 기술을 통해서 말이다.

<목차>

- 제1장 : 설득력은 '자세'로 결정된다
- 제2장 : 설득력 있는 사람은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 제3장 : 상대를 그러할 마음이 들게 하는 3가지 회화의 기술
- 제4장 : 설득을 '과학'하라
- 제5장 : 설득을 서포트하는 '2가지 도구'
- 제6장 : 지금 바로 사용 가능한 '설득의 테크닉'
- 제7장 : 위인들의 설득술

<저자소개>

사이토 타카시

동경대 법학부를 졸업하였으며 전공 분야는 교육학, 신체론, 커뮤니케이션론이며 현재는 메이지대학 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1 년 출간한 '소리 내어 읽고 싶은 일본어'가 시리즈 260 만 부 판매를 돌파하며 베스트셀러에 진입, 일본어 붐을 일으켰으며, 기타 저서로 '신체 감각을 회복하라', '독서력', '질문력' 등이 있다. TBS 계열 방송 '정보 7 Days 뉴스캐스터'에 고정 출연 중이다.

No.20171122-005

제목: 역경 속에서 피는 꽃은 아름답다

저자: 쿠도 신에이

페이지수: 254

장르: 철학.

출간일: 2017년 9월 21일



<내용소개>

수많은 암 환자를 구해온 명이가 말하는 미래의 삶의 철학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용기를 줄 책

일본 의료계에서 외과를 전공한 외과의인 저자는 지금까지 세계 의학계에서 정설로 일컬어진 '대장암은 용종에서 발견된다'는 상식을 깨고 함몰형평탄형 대장암을 발견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암 진단 메커니즘을 정립하는 등 획기적인 의료 개발에 임해 왔다. 그가 당초 본인의 전문분야도 아닌 '대장암'의 발병 원인에 의문을 갖고, 본래대로라면 내과 영역에 속할 '내시경 진단을 통한 대장암 발병 원인 규명'이라는 진료 방법을 연구하던 당시는 학계에서의 인정도, 동료 의사들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외로운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주위 환경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일본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며 대장암이라는 질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대장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조기 발견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연구를 계속한 결과, 용종이 아닌 대장암의 발병 원인을 밝혀내게 되었고, 의료기기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진단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내시경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장암으로 고통 받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어려운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낸 작가의 인생관과 사고 방식을 담고 있다. 본문에서 저자는 매우 단순하지만 철학적인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당신은 왜, 지금 그곳에 서 있는가?', '저항으로부터 좌절한 인간이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일어선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본인 스스로의 경험에 빚대어 풀어낸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는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의 거장인 월트 디즈니의 '역경 속에서 피는 꽃이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다'는 문구를 인용한 타이틀처럼, 험난한 현대 사회 속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더 밝은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인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 나아가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장: 당신은 왜 거기에 있는가?

제1장: 밀려난 사람은 위험을 쫓으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제2장: 녹슨 인생보다 닳아 없어진 인생이 낫다

제3장: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서로 도울 수 있다

제4장: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

<저자소개>

쿠도 신에이

1947년 아키타현 출생으로 1973년 니가타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다.

1985년 아키타 적십자 병원 외과부장을 거쳐 1992년 병원 위장 센터장을 역임하였다.

2000년 쇼와대학 교수, 쇼와대학 요코하마시 북부병원 소화기센터장을 거쳐 2001년 병원 부원장을 겸임하였다. 기존 저서로 '조기 대장암' 등이 있다.

No.20171122-006

제목: '만약에' 사고법

저자: 토쿠마스 에미코

페이지수: 192

장르: 비즈니스 경제

출간일: 2017년 8월 24일



<내용소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강의 커뮤니케이션! "NEN" way of thinking!

이 책의 저자 토쿠마스 에미코는 오노 요코를 비롯, 다수의 할리우드 스타, 메이저리그 톱 레벨의 야구선수 등 셀러브리티를 고객으로 둔 뉴욕에서 활동하는 플로럴 아티스트이다. 이러한 초일류 유명 인사를 고객으로 둔 여성 디자이너라고 하면 일견 엄청난 수완을 지닌 커리어우먼을 상상하기 쉬우나 그녀는 본인 자신을 소극적이며 평소에는 다소 얼이 빠져 있는 타입이라고 소개한다. 그런 그녀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뉴욕을 필드로 일류의 반열에 들어선 비결을 최강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만약에' 사고법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만약에' 사고법은 일본인 특유의 '타인을 신경 쓰고 배려하는 마음', '연민', '신중함', '끝까지 해내는 힘'과 같은 기질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저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배제하는 최강의 성공 도구이자 본질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준비로 실패 요인을 없애는 기술로, 어떤 타입의 사람과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며 결과적으로 고객의 기억에 각인되는 특별한 일을 가능케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업무 진행 방식을 먼저 살펴보자. 업무 진행 중 무언가 트러블이 발생하면 트러블을 없애고 업무를 다시 진행한다. 예상 외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 업무 자체는 실패하게 되며 업무 추진 중에 장벽을 마주하면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기 마련이다. 반면 '만약에' 사고법 패턴을 가진 일류를 상대하는 사람들의 업무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발생 가능한 트러블을 사전에 생각하여 예비적 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예상 외의 상황에는 별도의 대응책을 통해 원만히 회피한다. 또한 업무 추진 중 무언가 벽에 부딪치게 된다면 주위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 극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실패하지 않고 최선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류라 불리는 고객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다음의 기회로 이어지며 본인 스스로가 일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책은 발생 가능한 예외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비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자'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비즈니스 실용서이다. 예비적 계

획을 생각하고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은 언뜻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와는 역행하는 듯 느껴진다. 비즈니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간과 비용이라는 자원이 두 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류'라고 하는 필드는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세계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분의 예비적 계획이 필수적이다. 대부분 직장생활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실패를 최소화하고 보다 높은 스테이지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힌트가 가득한 타이틀이다.

<목차>

- 제1장 : '만약에' 사고법이란 무엇인가?
- 제2장 : '만약에' 사고법이 있다면 세계 일류와 만날 수 있다
- 제3장 : '만약에' 사고법을 갖추는 10가지 습관
- 제4장 : 일류의 '만약에' 사고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다
- 제5장 : 최고의 결과를 위한 '만약'을 버리다

<저자소개>

토쿠마스 에미코

오노 요코 등 헐리우드 스타와 초일류 연예인, 트럼프타워와 같은 유명 브랜드를 주 고객으로 하는 뉴욕 거주 28년 차인 이벤트 플로럴 디자이너다.

1996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트&디자인 스쿨인 파슨스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Professional Floral Design 자격을 취득하고 1998년 Precious Sky Design NYC를 설립하였다.

뉴욕 굴지의 이벤트 플로럴 디자인 회사인 Stonekelly Events에서의 근무와 병행, 개인 웨딩 플래닝 및 인테리어, 외관, 테이블 코디, 플로럴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후 뉴욕에서 활동하는 톱 이벤트 플로럴 디자이너인 Frank Alexander에 사사를 받고, 2012년부터 스스로 디자이너로 활약, 개인을 위한 꽃과 테이블 코디, 이벤트 기획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강사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No.20171122-007

제목: 인공지능의 '최적의 솔루션'과 인간의 선택

저자: NHK 스페셜 취재팀

페이지수: 224

장르: 비즈니스 경제, IT

출간일: 2017년 11월 8일



<내용소개>

인공지능(AI)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블랙박스라도 같다.

인공지능(AI)에게 인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판단을 맡길 수 있을까?

일본 최대 공영 방송국인 NHK 의 간판 프로그램인 'NHK 스페셜'팀이 인공 지능(AI)의 상용화 도입이 시작된 세계 각지의 현장을 철저하게 취재하여 2017 년 7 월 방영한 NHK 스페셜 '인공지능(AI), 천사 혹은 악마 2017'의 내용을 단행본화 했다. 인공지능(AI)의 기술 발전과 이에 따라 급변하게 될 현실사회의 관계를 잘 전망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세돌 9 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다면, 옆 나라 일본에서는 장기 명인 사토 아마히코와 인공지능 포난자의 2 차례에 걸친 대국이 있었다. 과거 10 년 간 5 만 대국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기계 학습을 수행한 포난자는 첫 돌부터 인간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정석을 벗어나는 대국을 보이며 사토 아마히코에게 압승을 거둔다. 일본 나고야현의 한 택시회사에서는 통신사 유동인구 정보와 택시 승하차 정보, 날씨와 요일, 시간대 정보와 같은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개별 택시 운전기사에게 손님을 태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와 이동 경로를 안내한다. 그런가 하면 싱가포르의 한 버스회사에서는 버스기사들의 운전습관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사고 유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범 죄 대국이라는 오명으로도 이름 높은 미국은 기존 범죄자들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게 학습시킴으로써 초범 범죄자들의 재범 확률을 예측, 가석방 시기 등을 조절하며 수감자 수를 관리한다. 인공지능(AI)의 상용화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금융권이다. 각 국가의 증권투자기업들의 기업활동을 보면 이미 인간이 기관거래를 주도하던 시대는 종말, 인공지능이 예측을 기반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이른바 인공지능에 의한 머니게임의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현실세계에 깊이 침투했으며 그 상용화는 분야를 막론하고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 혹은 불안함은 존재한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정보를 엄청난 속도로 학습하고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지만, 그 분석과 처리과정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즉, 인공지능의 사고 과정은 블랙박스라도 같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인사고과 평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퇴사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지원들을 인공지능을 통해 필터링하는 시대에 진입해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 놓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만약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이로 인한 리스크는 누가 짊어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현실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깊이 침투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두려움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인공지능을 인류의 적으로 두고 배척하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인 교차점을 찾아 잘 활용한다면 인간세계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독자에게 인공지능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기술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 이동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해 입체적으로 상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는 타이틀이다.

<목차>

- 제1장 : '최적의 솔루션'과 신의 손 - 전왕전 제 1국
- 제2장 : 연구실에서부터 현실 세계로 - 확산되는 비즈니스에서의 활용
- 제3장 : 관리당하는 인간들 - '최적의 솔루션'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 제4장 : 인공지능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 AI 정치가의 가능성
- 제5장 : 반상에 나타난 미래 - 전왕전 제 2국

<저자소개>

오오야기 요시노리

1969년 출생, 1994년 NHK에 입사하였으며 현재 과학환경 프로그램의 부수석 디렉터로 의료 IT 분야를 메인으로 NHK 스페셜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주요 제작 프로그램으로 NHK 스페셜 '잠자는 재생력을 불러일으키다', '알츠하이머 병을 멈춰!', '킬러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치매는 조기발견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공저로 '킬러 스트레스, 몸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등이 있다.

이노우에 유우지

1976 년 출생, 지방 방송국 디렉터를 거쳐 2008년 NHK에 입사하였으며 현재 대형 기획 개발 센터 이사로 근무 중이다. 주요 프로그램에 NHK 스페셜 '우리들의 미래~저출산 안심 육아 처방전', '둘의 속죄~일본과 미국, 증오를 넘어'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초저출산 이차원의 처방전(공저)' 등이 있다.

No.20171122-008

제목: 비교하지 않는 생활: 자신의 잣대로 살아가기 위한 힌트

저자: 마스노 순묘

페이지수: 221

장르: 종교(불교)

출간일: 2017년 9월 22일



<내용소개>

나는 나, 너는 너!

현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 강도 높은 경쟁 사회이다.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Yes인가? No인가?', '이득인가? 손해인가?' 등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황은 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결과적으로 사실은 더 많은 중요한 선택들을 제외해 버리게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들이 나 자신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이러한 비교가 자신을 침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과정에서 외로움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소중한 사람을 알게 모르게 상처 입게 한 적은 없는지 말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에는 '맞아, 그렇네' 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저자는 '비교'와 '경쟁'에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것, 보다 중요한 '잣대'를 먼저 세우고 상황을 바라보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그 '조금'이라는 거리의 수준이다. 너무 발을 빼게 된다면 그건 단순히 사회에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삶이 충실한 인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타인은 타인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라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내는 힌트를 손에 얻게 되면 눈앞의 풍경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주위의 평가에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며, 질투와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자존감이 높아지며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관계하는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의 기존 작품인 '경쟁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면 인생은 순조로워진다'를 가필 수정한 작품이다. 우리에게 급변하는 사회,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꿀 힘은 없다. 하지만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의 몫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들의 연속일 수 있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비교와 경쟁의 삶에 지쳐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현대인이다. 일상적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느끼며 자신의 쓸모, 자신의 삶의 행복 수준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모두에게 위로가 될 타

이틀이다.

<목차소개>

제1장: '타인은 타인, 자신은 자신'이라는 인생의 조언

제2장: 보다 더 '스스로의 페이스'로 가면 된다

제3장: '인간적으로 성숙하는 것'의 의미

제4장: 인생에 '독주' 따위는 없다

<저자소개>

마스노 순묘

1953 년 일본 가나가와 현 출생으로 겐코지(建功寺)의 주지스님이자 정원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다다미술대학 환경디자인과 교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특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마음까지 디자인하는 인생 코치로 사랑받으며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인 100 인(뉴스위크 일본판 선정)'에 뽑히는 등 종교, 예술을 넘나들며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정원 디자이너로도 널리 알려진 그는 선 사상과 일본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 '선의 정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도쿄의 캐나다 대사관, 베를린 일본 정원 등이 있다. 이에 힘입어 정원 디자이너로는 최초로 일본 '예술선장 문부대신 신인상'을, 독일연방공화국 공로훈장인 공로십자훈장을 수상했다. 저서로 '스님의 청소법', '불안과 외로움을 다스리는 인생의 약상자', '심플한 생활의 권유' 등이 있다. '불필요한 것과 헤어지기'는 저자의 대표작으로 일본에서만 20 만 부를 돌파했다.

No.20171122-009

제목: 요괴 심술쟁이 표지판

저자: 츠치야 후지오(글, 그림)

페이지수: 76

장르: 아동그림책

출간일: 2015년 1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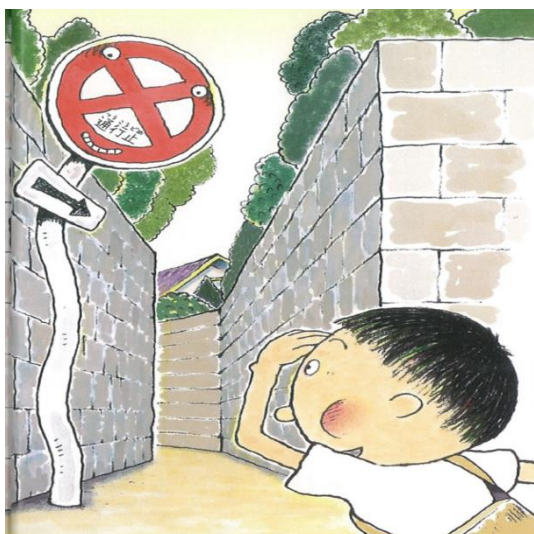
<내용소개>

히데는 심술쟁이 표지판들에게서 벗어나 무사히 카레라이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카레! 카레 라이스를 먹을 거야!" 몹시 배가 고픈 히데가 아주 좋아하는 카레라이스를 먹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때 느닷없이 나타난 표지판이 지름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데는 "와~ 살았다, 고맙습니다"라고 표지판에게 말하고 지름길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지름길은 단순한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주의 표지판'에서는 동물이 튀어 나오고, 말이 너무 많은 '수다쟁이 표지판'이 나타나기도 하고, 건널목에 있는 '정지 표지판'이 내일 기차가 올 때까지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래서는 집에 돌아갈 수 없겠다고 생각한 히데는 지름길을 포기하고 원래의 길로 돌아 가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거대한 표지판 요괴가 히데를 지하실에 가두어 버립니다. 히데는 집에 돌아가 카레라이스를 먹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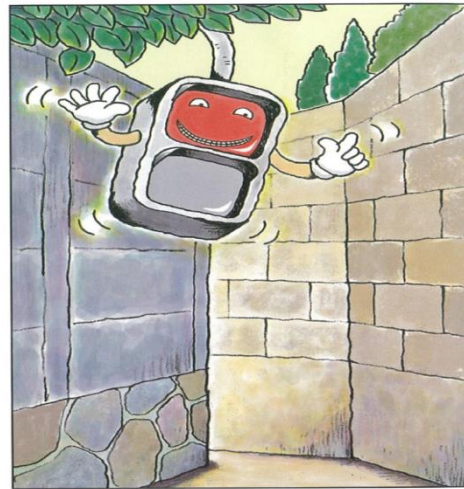
마지막이 궁금해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멈출 수 없는 책입니다. 다음 전개가 쉽게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마조마 두근두근 기대하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름길이 반드시 좋은 방법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저학년부터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ところが、
なぜか、きょうは
道がずっと つづいていた。
(あそこに みえるの、
うちの やねじゃないか!)





<저자소개>

츠치야 후지오(글, 그림)

1953 년 도쿄 출생으로 도쿄 예술대학 대학원 금속 조각과를 수료했다.

기존 저서로 '가져버려 가져버려 또 가져버려', '잠시 들린 엘리베이터', '몬스터 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이 있으며 제 3 회 산리오 딸기 그림동화와 그림책 그랑프리 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No.2017112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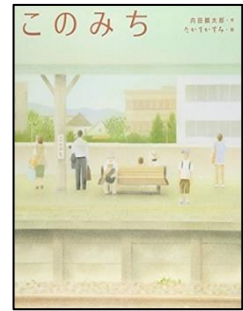
제목: 이 길

저자: 우치다 린타로(글), 타카스 카즈미(그림)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그림책

출간일: 2015년 7월 16일



<내용소개>

할머니네 집으로 가는 나의 소중한 '이 길'

여름방학을 맞은 유이치는 그토록 보고 싶던 할머니의 집으로 향합니다. 유이치의 생활 속에는 많은 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할머니 집으로 가는 '이 길'이 가장 소중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걷고 걸어 돌다리를 건너서 드디어 도착한 할머니의 집, 그 곳에서는 할머니와 강아지 쿠로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맛있는 수박을 먹으며 유이치는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의 손자로 태어난 것도 이 마을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이 길'은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길을 기분 좋은 문장과 서정적인 그림체로 그려내 그리운 시골 풍경을 상기시켜줍니다. 저자는 아무 것도 아닌 '이 길'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디에나 있을 법한 길일 뿐이지만 '이 길'은 손자와 할머니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인 것입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의 그림책으로, 시골풍경을 감상하며 아이와 함께 할머니를 떠올리며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우치다 린타로(글)

1941 년 후쿠오카 현 출생으로 간판장인 일을 하며 시를 쓰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 '거꾸로 사자(1986 년 그림책 일본상 수상)', '거짓말쟁이의 거짓(1997 년 소학관 아동출판 문화상 수상)', '칙칙폭폭(1999 년 일본 그림책상 수상)', '새근새근 너구리가 잠들어 있으면(2009 년 일본 그림책상 수상' 등이 있다.

타카스 카즈미(그림)

1957 년 후쿠오카 현 출생. 동화와 그림책의 삽화가로 활약 중이며 부드러운 터치의 파스텔 그림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림을 담당한 작품으로 '여우의 공중 전화 박스', '작은 곰과 안경', '너무 많이 울면 안돼', '약속이야! 뮈', '편지 감사합니다' 등이 있다.